

## ‘기업(企業)은 사람’ 이다!

-미션과 비전으로 목표 달성에 도전-



### ▲ 이승우 사장

- 1971 건국대학교 축산학과 입학
- 1977 한협가금육중(주) 입사
- 1985 애그리브랜드퓨리나 코리아(현, (주)카길애그리퓨리나) 영업이사
- 1993 우성사료 부사장
- 2003 서울사료(현, 한국축산의희망서울사료) 사장 취임
- 2004 농업회사법인 조인주식회사 사장 취임

우리나라 계란 소비량은 220개(연간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15kg(연간 1인당) 수준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낮은 수치이다. 이에따라 업계에서는 ‘국민 모두 365일 계란 먹기’, ‘백색육 고영양식품 닭고기 섭취’를 실천하는 그날을 위해 업계에서는 양계산물의 영양적 가치를 부각하고, 소비홍보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한 양계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부화에서부터 생산, 난가공, 유통사업까지 총괄하는 30년 전통의 기업 ‘조인(주)’ 이 있다.

동사는 부화업에서 시작해 Lohmann(산란계)과 Ross(육계)를 공급하면서 올바른 먹을거리 문화 창출을 위해 300여명의 임직원의 부단한 노력으로 금년 한해 1,000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한 전문기업이다. 특히나, 금년 신종플루 발생으로 백신제조를 위해 국내 모 제약회사에 일정량 유정란 공급하면서 계란의 부가가치와 영양적 가치를 간접적으로 홍보했다.

양계사업의 장기비전으로 고부가가치 사업에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로 하다고 강조하는 조인(주)의 이승우 사장을 만나 동사의 사업과 그의 경영마인드에 대해 들어보았다.

## 교육훈련과 연구개발에 투자

이승우 사장은 건국대학교 축산학과를 졸업해 당시 '천호부화장', '한일부화장' 과 함께 국내 빅3 부화장 중 하나인 '한협기금융중(주)'에 입사해 국산계의 시초품종, '한협603' 육용종계를 보급하는 일을 맡아왔다. 이후 애그리브랜드퓨리나 코리아(현, (주)카길애그리퓨리나)에서 영업이사로 활동하면서 Top Salesman으로 부상했다. 8년 뒤 우수사료 부사장으로 취임해 탄탄한 조직력과 영업기획력을 바탕으로 판매실적 100만톤 달성을 이뤄내 사료업계 가운데 1위까지 끌어올리는데 일익을 했다.

탄탄한 경영마인드를 인정받으며 2004년 조인(주)에 취임해 무엇보다 조직원의 육성을 강조하며, 교육훈련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에 아끼지 않았다. 또한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사명을 이룩하기 위해 조직의 공동목표, 즉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조직의 일체감 형성을 강조했다. 노력 결과, 취임 당시 연매출 400억원에서 출발해 끊임없는 미션과 비전을 바탕으로 4년 안에 매출액 1,000억원에 도달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 30년 계란사업을 이끌어온 조인(주)

조인(주)은 30년 전 강남부화장으로 설립해 2002년 조인(주)으로 거듭나면서 현재, 부화에서부터 생산, 난가공, 유통 사업까지 진행하고 있다.

전국 13개 농장에 100만수 규모로 Lohmann과 Ross를 공급하면서 3無(무항상제, 무착색제, 무산란촉진제)의 기본원칙으로 철저한 사육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또한 용인GP와 여주 가남GP에서 120만개의 계란 유통사업을 진행한다. 한편, 지난 2007년부터는 신규사업으로 액란, 삶은 계란, 메추리알 등 난

가공 사업(누리웰)으로 계란소비의 활성화를 위한 발판을 만들었다.

## 계란유통의 전환점, '계란생산이력제' 최초 실시

특히나 조인(주)는 소비자 만족을 위해 항상 새로운 아이템으로 계란사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맡아왔다.

'계란생산이력제(Egg Traceability System)'를 최초로 도입해 생산자의 농장에서 소비자의 식탁에 이르기까지 계란의 이력 정보를 기록·관리해 계란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공개했다. 계군 별로 고유한 계군 번호를 부여하여 농장정보, 주령, 계란 등급, 항생제 잔류검사, 등급 판정 및 포장일자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소비자 알권리 제공에 나섰다. 이 시스템은 위생상 문제 발생시 신속한 조치와 함께 소비자 피해 최소화 및 AI 등 질병 발생시 이력 추적에 용이해 더욱 안전한 식품 생산과 함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다.

## 목표&경영철학

이승우 사장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그린컨셉은 단순히 전기를 절약하자라는 의미가 아니다."며 "다른 육류에 비해 사육일령이 짧고 사료효율이 높은 '닭고기'와 '계란'을 섭취 한다면 국민 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전한다.

마지막으로 "어느 조직이나 비전을 크게 갖고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조인(주)은 2015년에는 매출액 1조원을 목표를 갖고 정채되어 있는 계란·닭고기 소비를 늘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안전한 양계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뜻을 내비쳤다.

(정리 | 장성영 기자, ch-spirow@hanmail.net)